

# 국내 고고학·역사학자들, 11월 광주로 모인다

### 고고학 전국대회 광주 유치...광주시·고고학회·관광공사 협약 문화유산-예술 어우러진 '아트-헤리티지 마이스' 모델 구축

우리나라 최고의 고고학·역사학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광주에 모여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대에 나선다.

광주시와 한국고고학회, 광주관광공사는 지난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4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고고학회는 1976년 국내의 고고학 및 역사학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학술연구 단체다.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는 고고학·역사 전문가 및 전공학생이 참석하는 전국 규모 학술행사로 매년 순회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교역과 교류'를 주제로 11월 1~2일 이틀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전일빌딩245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개최 장소 구성 및 협력망 운영을, 한국고고학회는 문화유산의 학술연구와 홍보를, 광주관광공사는 광주문화유산을 비롯

한 주요관광거점 방문 등 참가자 관광 지원 등을 맡는다.

광주는 영산강권에서 최초로 확인된 200만년 전 치평동 구석기 유적부터 2000년 전 마한과 후백제의 첫 수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시라는 점에서, 이번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개최의 의미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는 또 세계적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아트페어 등 다채로운 문화자원이 산재한 역사문화도시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이번 협력으로 문화자원에 기반한 '아트-헤리티지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등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주 한국고고학회장은 "국가사적인 신장동 유적, 충효동 가마터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과 예술이 어우러진 광주에서 대회를 개최해 고고학 외연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성주 한국고고학회장, 김진강 광주관광공사사장 등이 최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4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호남지역 고고학적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광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해 전국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사장은 "광주에는 독특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곳곳에

서 광주만의 정서가 서린 예술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며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열리는 개최되는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를 통해 예술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아트-헤리티지 마이스(Mice) 사례를 구축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분기 자동차세 납부를 광주시, 17일~7월1일

광주시는 "2024년 6월 1분기 자동차세 26만 1000건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된다.

1분기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한다.

1분기 납부기한은 17일부터 7월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142211, 1661-6669)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 우기 대비 도로정비 총력 대응

### 지난 겨울 도로파임 신고 1만1793건...전년대비 226% 급증 5월말 96.7% 복구...우기 대비 사업비 30억여원 추가 확보

광주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로파임으로 훼손된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등 사업비 30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민원 다수 발생 구간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겨울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로파임(포트홀) 신고 1만1793건 중 1만1409건(96.7%)을 신속히 복구했으며,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하남진곡산단로 등 12개 노후 노선을 대상으로 선별, 질삭 덧씌우기 등 71건의 도로재포장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광주지역 도로파임 신고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5201건보다 무려 226% 급증한 것으로, 지난 겨울 기록적인 강수량과 급격한 온도차 등이 겹친 영향이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 겨울에 이어 여름철 우기에도 도

로파임 등이 집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루 24시간 상황 발생 때 도로 정비에 신속 투입할 수 있는 대응 태세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도로 임시복구 자재인 포드아스콘 3000포를 확보했으며, 긴급도로보수 장비 13대(중형건설본부 직영장비 7대, 민간장비 6대)도 배치했다. 또 도로보수 전문인력 9개조 30명을 편성하고, 24시간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광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민원의 경우 접수받은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금남로4가역 등 승강기 개량 작업...이용 제한

### 광주교통공사, 25일부터 4곳

광주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역사 내 승강 설비 개량작업을 진행한다.

16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남로4가역 엘리베이터를 시작으로 8월 27일까지 4개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총 9대의 안전 부품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자동구출운전수단' 등 신규 안전장치를 보강한다.

공사 기간은 각 승강기별로 15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이용을 일시 제한한다.

공사 일정은 금남로4가역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양동시장역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소태역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농성역 8월 13일부터 27일까지다.

교통공사는 또 국·사비를 확보해 올 하반기에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65개소의 주브레이크를 교체하고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핸드레일)와 디딤판 안전장치인 핸드레일 시스템도 적용한다.

또 금남로4가역과 문화전당역 에스컬레이터 6대는 첨단 기술을 집약한 최신형 세 제품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교통공사는 승강기별 이용 중단 기간을 역사 안팎 안내문, 공사 홈페이지, SNS 등에 공지하고, 각 장애인단체 및 해당 역사를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에게도 별도 통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악취·하수도 막힘 원인...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집중 점검

### 시, 제조판매업·공동주택 등 대상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28일까지 하수도 관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특히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 내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인증 제품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누리집(http://www.kiwatec.or.kr)에서 가능하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을 막고 하수역류 등으로 인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일근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

### 시, 백화점·복지시설 등 175곳 냉각탑·급수시설 소독 철저

광주시는 "7월부터 여름철 레지오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75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돼 폐렴·독감을 일으킨다. 대형건물의 냉각탑·급수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냉방기 사

용이 급증하는 하절기에 환자 발생이 집중된다.

주로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열·기침·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건강한 사람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독감형으로 발생하지만 의료가관 등에서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는 레지오넬라 폐렴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환경 검체를 채취한 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